

동성결혼 인정에 PCUSA 한인교회들은?

선한목자장로교회 교단 탈퇴 선언

PCUSA가 동성결혼을 교단 차원에서 인정한 이후, 미국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PCUSA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성경적·전통적·보수적 결혼 정의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한 일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PCUSA가 단순히 동성결혼을 묵인한다든지 동성애자 성직자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경에 명시된 결혼의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반동성애에 진영은 경악했다.

친동성애에 진영에서 볼 때에도 그 동안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연합그리스도교회(UCC)·미국성공회(TEC) 등 여러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했지만,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마저 이를 뒤따랐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진전이다. 2013년 당시 연방대법원도 양성결혼자에게만 부여되는 연방정부의 혜택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결혼보호법(DOMA)을 폐지하긴 했지만, 감히 결혼의 정의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6월, 동성결혼의 전국화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PCUSA의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단 결정에 한인교회는 대체로 차분

그러나 교단 내부는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다. 최근 수년간 총회에서 친동성애적인 결정들을 잇달아 내리면서, 결혼의 정의도 언젠가는 바뀌고 말 것이라고 예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 직후 적극적인 탈퇴 움직임은 없지만,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한인교회들은 성명을 내고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PCUSA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미국장로교회한국회 전국총회(NCKPC) 이영길 총회장은 “우리 NCKPC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어느덧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면서 한인교회들의 각성을 요청했다. 한인교회들이 속한 3개 한미노회들 가운데 동부한미노회도 “우리 노회 전체는 동성결혼을 성서적인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산하 교회에서는 동성결혼 예배와 주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한인교회 입장에서 이번 결정이 그나마 다행인 측면도 있다. 목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일이라도 목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신앙 양심을 존중한다. 즉, 누구도 동성결혼 집례를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지역 한인 목회자들은 최근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 모여 이 점을 재확인하고, 교회가 속한 노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한미노회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교단이 위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한인들의 현장 목회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어찌면, “아직은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캘리포니아 선한목자장로교회 교단 탈퇴 선언

수년간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최소 수백 개의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는 살럿제일장로교회(담임 최유찬 목사), 델러스 베다니장로교회(담임 박준걸 목사) 등 한인교회들도 있다. 이런 와중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PCUSA 소속 한인교회 중 가장 큰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2015년 3월 22일 교단 탈퇴를 선언했다. 공동의회에 성도 745명이 참석해 찬성 709표, 반대 33표, 무효 3표로 95% 찬성을 얻었다.

→2면에 계속



OC교협이 주최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 새벽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거행됐다. 이 예배에는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예수 부활은 율법·악·불행에 대한 승리”

남가주 11개 지역에서도 각각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인 4월 5일 새벽, 남가주 11개 지역에서 각 지역 교계 연합단체 주최로 일제히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중 오렌지카운티(OC)는 OC교협을 비롯해 목사회, 기독교평신도연합회, 원로목사회, 원로성직자회, 여성목사회, 장로협의회가 공동으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새벽 5시 15분에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예수 부활은 율법의 속박, 악의 권세,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구하고 자유케 하는 승리”라면서

“OC 지역 모든 교회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예배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 다음 세대의 교회 정착과 부흥, 한국의 정치 안정과 평화통일, 타민족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OC교협은 이번 예배를 EM, 타민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기획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한 기도는 EM 목사인 제프 현 목사가, 타민족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가데말라인들이 출석

하는 브니엘교회의 이반 구즈만 목사가 맡아 의미가 컸다. 브니엘교회의 중창단도 구즈만 목사와 함께 참석해 헌금찬송을 불렀다.

예배에서는 김기동 목사(교협회장)가 사회, 객재필 목사(목사회장)가 기도, 윤우경 집사(평영회장)가 성경봉독, 은혜한인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 이범식 장로(교협 후원이사장)가 헌금기도, 박재만 목사(교협 서기)가 광고,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축도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며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했다.

OC교협은 이 예배의 헌금 전액을 타민족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라면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LA 지역은 풍성한교회에서, 동부 지역은 아름다운교회에서, 중부 지역은 감사한교회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은 남가주살롬교회에서,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은혜와평강교회에서,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샌버나디노 지역은 창대교회에서, 벤추라카운티 지역은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샌디에고 지역은 팔로마한인교회와 샌디에고사랑의교회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다. (2면에 관련 기사)



LA 동부지역은 아름다운교회에서 동부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교회) 사회로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가 기도하고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가 “부활-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라는 설교를 전했다.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가 봉헌기도하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광고하고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가 축도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박영심 간호부장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각 지역 연합예배로 부활 기념

사우스베이 · 인랜드 · 중부 · 밸리 등



사우스베이교협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500여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살롱교회에서 드렸다. 이항영 목사(남가주기쁨교회)가 사회,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가 기도하고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이상진 목사(토렌스함께하는교회), 김관중 목사(벤엘장로교회), 윤목 목사(팔로스버디스 소망교회) 등이 사우스베이 복음화와 미국과 한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김준식 목사(살롱교회)가 축도했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ANC온누리교회에서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박성호 목사(인랜드ANC온누리교회)의 사회로 강승배 목사(남가주은파교회)가 기도하고 이희철 목사(갯스윌연합교회)가 "그가 살아나셨다"란 설교를 전했다. 이후 강문수 목사(에덴선교회)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인랜드 지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 후, 손상헌 목사(두란노교회)가 헌금기도하고 박충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가 축도했다.



중부교회협의회도 감사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심명구 목사(한민감사교회) 사회로 방상용 목사(세리토스동양선교회) 기도, 김중근 목사(새희망선교회) 성경봉독, 석태운 목사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이란 설교, 김영대, 용장영(큰사랑장로교회), 현에스터 목사 특별 기도, 전동은 목사 헌금기도, 최국현 목사(은혜와진리교회) 광고, 오병의 목사(건강한교회) 축도로 예배가 진행됐다.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밸리교협 주관으로 예배했다.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남가주교협 · 목사회 · 여성목사회 부활절 연합예배 드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남가주교협 회장 최혁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회 연합 2015 부활절 예배가 4월 5일(부활주일) 오전 5시 30분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성료됐다.

이날 연합예배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회장 최혁 목사)를 비롯,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강지원 목사) 연합으로 드려졌다.

남가주교협 총무 이현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현재 최혁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주안예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백지영 목사의 기도, 주안예교회 연합성가대의 특송, 심진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류당열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류당열 목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26)라는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

셨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절을 맞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길 바란다"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본받자"고 말했다.

이어서 강지원 목사가 '교회의 영적 재건과 부흥을 위해', 김영배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동포사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특별기도 후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이흥주 장로) 중창단의 특별찬양, 김해진 성도(주안예교회)의 봉헌 및 특송, 이방걸 장로(남가주교협 이사장)의 봉헌기도, 사회자의 광고, 남가주교협 최혁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끝으로 찬송가 155장을 다함께 부른 후 최혁량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회장)의 축도로 '2015 부활절 연합예배'가 은혜롭게 성료됐다.

이영인 기자

선한목자장로교회 공동의회 열고 교단 탈퇴

→ 1면으로부터 계속 PCUSA 소속 교회들의 재산은 모두 교단에 신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은 노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교단 탈퇴 시 불펜 한 자루도 갖고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못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고도 한다.

실제로는 각 노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혜로운 결별 정책'(Gracious Dismissal Policy), '은혜로운 분리 규정'(Policy for Gracious Separation) 내지는 '원만한 이전 정책'(Peaceful Dismissal) 등을 만들어, "노회와 공식적으로 입장을 조율한 후, 공동의회를 열어 성도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으며, 노회에 선교분담금을 지불한다면" 재산을 보유한 채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긴 했다.

2014년 3월 노회 합의 하에 교단 탈퇴 결정

그러나 선한목자장로교회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선한목자장로교회도 2014년 3월 23일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해서 성도 91%의 찬성(총 817표 중 찬성 738, 반대 74, 무효 5)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교단을 탈퇴하되 재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63만5천 달러의 선교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기에 원래대로라면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이미 교단 탈퇴가 완료되었어야 정상이다.

탈퇴 반대 성도들로 인해 갈등 2015년 3월 다시 공동의회

그런데 선한목자장로교회 내 70여 명의 교인들은 공동의회 결과에 불복하고 교단 잔류를 계속 주장하면서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노회는 이것을 교회 갈등이라 판단,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하겠다고 경고했다. 노회는 또 동성결혼 문제 및 교단 탈퇴와 관련, "교회가 강단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예배 중에 교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교인들과 노회를 무리하게 비하했다," "교단 이탈에 동조하도록 부당하게 교인들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선한목자장로교회가 다시 2015년 3월 22일 공동의회를 열어 탈퇴를 선언하자, 노회는 이것을 무효화하고 결국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했다.

선한목자장로교회는 "교단 탈퇴에 관한 노회의 규정을 잘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그 지위를 이용해 교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부당함을 토로한다. 교회는 "작년 3월 GDP(Gracious Dismissal Policy)의 가이드라인대로 협상을 진행하여 노회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노회가 GDP 내용을 개정해 탈퇴를 어렵게 만들고 합의 사항을 번복했다"고 항변한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킨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제3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2015 효사랑

응모주제 나는 누구인가?
효사랑 글짓기, 효사랑 그림

응모대상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장애우 청소년(학년과 나이제한 없는 청소년)

응모주제 효사랑 글짓기(한글,영문 모두 가능함) - 나는 누구인가?
효사랑 그림 - 나는 누구인가?

원고분량 효사랑 글짓기(Letter size 3pages 이상, 글자크기 12pt)
효사랑 그림(크레파스, 수채물감, 드로잉, Oil Painting, 등...)

도화지규격 * 초등부(1st-5th) - 14"X17"(S)
* 중고등부(6th-12th) - 18"X24"(L)

* 작품 제출시 작품 뒷면에 e-mail Address, Full Name, School Name, Class, Home Address, Phone No. 를 꼭 적을 것.

접수기간 2015년 4월 15일 ~ 5월 20일
시상일시 2015년 6월 13일(토) 오전 10시
CTS 어린이 합창단과 울동 찬양팀(Seed of Worship)의 공연 및 시상식

작품제출 및 문의 효사랑 선교회 Tel. 714.670.8004 Cell. 562.833.5520
E-mail: hyosarangus@gmail.com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제출방법 우편, 방문, E-mail(글짓기에 한함)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가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효사랑 글짓기, 그림 시상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제공

대 상 Notebook (최신형 모델)
최우수상 Samsung Tablet
우수상 상장 & Androead Tablet
장려상 상품

동성결혼 인정은 하나님 말씀 부인한 사건

前 PCUSA 한인총회장 고태형 목사 인터뷰

선한목자장로교회를 담임하는 고태형 목사는 PCUSA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원(한국)을 거쳐,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유니온장로교신학교(Union-PSCC, PCUSA 소속)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교단에서 20년 가까이 목회했고 한인총회장까지 역임했다. 교단 내 한인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인터뷰에서 고 목사는 “이 문제는 절대로 재산권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이것은 신앙 양심의 문제이며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교단 탈퇴로 인해 재산권을 다 상실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다시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롤랜드하이츠에 위치한 이 교회의 자산은 약 63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다음은 고 목사와의 일문일답.

-동성결혼 반대를 이유로 교단 탈퇴를 선언했는데.

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초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성결혼은 그 열매 중 하나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동성결혼은 승인은커녕 토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한인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에 바빠서 교단 내부의 일을 잘 모를 수 있다. 나도 한인총회장을 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다. 우리는 PCUSA가 극보수주의부터 자유주

의까지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다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주의가 신앙을 다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 안에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다 떠나야 한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탈퇴를 준비해야 한다. 시에를 명성교회에 시무하던 김범기 목사는 교회 이름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개척을 선택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해도 노회가 우산이 되어 준다고 한다. 그리고 노회까지 인정해도 목회자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개교회 목회에는 영향이 없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지 않다.’ PCUSA는 개교회의 불완전성에 의거해 연결주의(Connectionalism)를 지향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노회, 노회는 대회, 대회는 총회의 명령을 듣는 이유가 없다. 위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 시스템이다. 그런 장로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예를 들어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침례교회라면 교단이 뭐라고 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장로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단적으로, 목사는 시무하는 교회

가 아니라 노회 소속이다. 노회에서 목사로 위임해 주어야 정식으로 시무할 수 있다. 정말 문제가 안 생길까? 노회 모임을 하게 되면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동성애자 목사가 성찬식을 인도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한인총회나 한미노회들은 한인들이 교단을 개혁하자고 한다.

이미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나올 때부터 했던 말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뤄졌는가? 총회에 172개 노회가 있는데 한미노회가 행사할 수 있는 몇 표 정도로 바꿀 수 있을까? 보수적 미국교회처럼 시위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 게다가 30년이나 20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늦었다. 지난 30년 동안 교단을 잠식해 온 자유주의를 막기는 늦었다. 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인총회장을 역임하며 교단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PCUSA 내의 자유주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게 됐다. 2011년 프레스비테리안 패널(The Presbyterian Panel)의 조사에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목사의 45%가 동의하지 않았고, 41%만이 동의했다. 그중에서도 확실히 동의한다는 답변은 불과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목사가 20% 수준이다.



고태형 목사는 “동성결혼 인정은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개교회 영향 없다는 말은 신학적, 현실적 모순 한인들이 교단 개혁? 이미 늦어

-재산 문제 때문에 교단 탈퇴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위의 문제들에 비하면 오히려 재산 문제는 간단하다. 자산과 건물을 보유한 큰 교회는 잃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사실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된다. 다만 목회자가 앞장서서 교단 탈퇴를 추진하다가 반대하는 성도가 많으면, 사역지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며 교회가 찬반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 지금 목회 자체가 힘든데 그 고생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선교나 열심히 하면 괜찮다’ 할 때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려는 교회에 조언한다면.

먼저는 성도들, 당회와의 의견 조

율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한인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90% 이상이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노회의 GDP 규정(은혜로운 결별 정책)을 따라야 한다. 노회 지도자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노회 자체의 GDP가 없다면 노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물론 따르지 않고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미 전역에서 몇 개의 한인교회가 탈퇴를 준비 중인가?

전체 1만여 PCUSA 교회 중 한인교회가 420개 정도인데, 내가 알기론 현재 한 6개 교회가 탈퇴를 추진 중이며 이들 중에는 큰 교회들도 있다.

김준형 기자



선한목자장로교회의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 모습. 당시 교회가 속한 샌가브리엘노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투표 끝에 교단 탈퇴를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빌딩)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이리칼마케팅) (이리칼마케팅)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여승훈 목사의 묵상칼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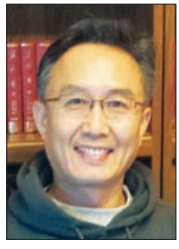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관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일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 곳은 머리부터 밑바닥 기초까지 온통 유일한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

이 말씀에서 먼저 "내 교회"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자. 아! 이 표현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내 교회"의 의미를 풀어 본다면 교회의 주인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물을 어긴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 버림과 동시에 무너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둘 때 강단의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지하게 된다. 만약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반박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세월이 지남과 동시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받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약 8년전, 당시 섬기고 있었던 텍사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비가 오기만 하면 교회 성가대실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 카펫을 적시곤 했었다. 빗물이 성가대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가대실 바깥 벽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화단을 없애 버리고 시멘트 공사로 막아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빗물이 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빗물은 여전히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후 몇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며 추가공사를 시도했지만, 비가 스며드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장로님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살살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붕 코너에 작은 틈새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거기로 들어온 빗물이 건물 아래로 흘러서 성가대실 바닥을 젖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곳을 막는 작업을 마친 이후부터는 다시는 빗물이 성가대실로 새어 들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그동안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막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가지 방법들은 아무런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수고 이전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방법도 그에 합당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수고도 보람있는 수고가 될 것이 아닌가? 진단을 잘 못하면 모든 방법이 비효율적이 되고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

교회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직분과 교회 생활의 연륜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유혹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목회자들이다. 필자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인정한다. 결심과 노력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길은 한가지다. 목회자가 즐기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고 즐기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고 선포할 때,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유혹의 덫에 걸려들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불들어 주고 겸손케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스스로 겸손해 보이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겸손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겸손으로 한마디로 뉘새가 난다. 그러나 성령께서 겸손케 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겸손과는 다른 것이다. 성령께서 겸손케 해 주시는 겸손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 당하는 데에서 나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겸손이 된다.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이러한 겸손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

으로 모시는 이 일을 제쳐두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한 마디를 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골로새서 2:19).

여기에 기가 막힌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그 진단이 무엇인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교회의 머리를 의미한다. 즉,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의 근원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당시 초대 교회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을까? 문제는 그리스도를 적당히 붙들었지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전부가 되고 삶의 전부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들 자신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현대 교회가 거듭 실패하는 배경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다루다 보니 수고만 할 뿐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 간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상처와 후회만 가슴에 남게 될 뿐이다. 상처는 치유하면 되고 후회는 풀이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인생의 세월은 어찌 할 방도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언제 어느 때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예배 드리는 교회일 것이다. 사람 눈에 보기에 표면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교회를 추구하면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교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교회의 열쇠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찬양의 자세부터 실력 향상까지...

찬양 대원을 찾아가는 열린 세미나

성가대나 찬양팀이 예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든 이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전현미 지휘자가 제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열린 세미나"를 연다. 성가대원, 합창단원, 찬양팀 등 찬양과 관련된 봉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찬양대 직분의 영적 자세, 효과적인 찬양 연습, 복식 호흡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현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총무인 전현미 지휘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풍금으로 반주를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 왔다. UCLA에서 작곡, UCLA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했고 대흥장



전현미 지휘자
로스앤젤레스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싸우스 베이여성합창단에서 지휘했다. 지난 2013년 베들레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국제찬양제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에버레스팅 합창단의 지휘도 맡은 바 있다.

전 지휘자는 "세미나에 참석한 찬양대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작은 불씨가 되어 남가주 교회들에 성령의 불이 다시 일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오는 4월12일 주일 오후 5시 성화장로교회(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24)에서 열린다. 문의) 310-381-9835

CGST 이민목회자 위한 연장 교육 실시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한인 이민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현대 목회에 필요한 재교육을 위해 제1차 이민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2주간씩 열리게 되며 오는 6월 강좌는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5과목을 이수하며 각 과목당 4회를 수업하고 수강료는 2주 수강에 500달러다. 2주 수강을 마치면 본교의 수료증이 발급돼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시 학점으로 반영된다. 이번에는 현대교회의 목회 사역과 성경신학(염광렬 박사), 비교종교학: 기독교를 위협하는 타종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김용준 박사), 이민교회의 목회리더십(이광진 박사), 기독교 역사관의 종말론적 이해(최희규 박사), 갈등사역: 교회분쟁과 갈등 해결 및 대처 방법(김용철 박사) 등의 강의를 개설됐다. 또 정신질환의 이해와 예방 및 회복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도 한 차례 있다. 모집 정원은 20명이며 6월 1일 마감된다. 수업장소는 본교 강의실(1127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3)이다. 문의) 김용철 박사 714-636-1722 문소현 기자



교수 김용철 박사

게 대처할 것인가?(김용준 박사), 이민교회의 목회리더십(이광진 박사), 기독교 역사관의 종말론적 이해(최희규 박사), 갈등사역: 교회분쟁과 갈등 해결 및 대처 방법(김용철 박사) 등의 강의를 개설됐다. 또 정신질환의 이해와 예방 및 회복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도 한 차례 있다. 모집 정원은 20명이며 6월 1일 마감된다. 수업장소는 본교 강의실(1127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3)이다. 문의) 김용철 박사 714-636-1722 문소현 기자

CEF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CEF)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올해는 "나의 안에 거하라(요15:5)"는 주제 아래 남가주와 북가주, 필라델피아 지역, 토론토 지역, 워싱턴 지역 등에서 열린다. 남가주는 4월 11일 세계야가페션

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여름성경학교 및 캠프, 단기선교, 주일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제공된다. 등록비는 일인당 70달러이며 단체 할인이 된다. 문의) 213-273-5534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인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한국 사이버대학 정규대학 학위취득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는 한국 21개 사이버대학과 MOU 체결을 하고 빠른 기간과 저렴한 학비로 한국의 정규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학

단기 선교사 자격증 취득
부설 단기 의료선교 훈련반 센터

단기 의료선교 도우미 사역, 양의사/한의사/간호사 준비
간호보조 및 견학생 교육, 의료선교 사역을 훈련 받습니다

의료선교, 선교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
침, 뜸, 부황, 수기치료, 지압, 추나요법을 단기간에 배워서
의료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담 및 문의

213-381-7755
213-381-7575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921 Wilshire Blvd. #405-408, Los Angeles, CA 90010 (월서+그라머시)

오렌지카운티 영적대각성 전도집회

주제: 디아스포라(이민)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강사: 이신웅목사 (신길교회 담임목사)
기독교대한성경교회총회장,
한국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일정: 은혜한인교회, 오렌지중앙성경교회,
나침반교회, 충만교회(세미나)

- 제 1집회
일시: 4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목사)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446-6200
- 제 2집회
일시: 4월 18일(토) 오후 7시
장소: 오렌지중앙성경교회 (담임 이경원목사)
주소: 13522 Golden West St., Westminster, CA 92683
전화: 714-891-2370
- 제 3집회
일시: 4월 19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업목사)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전화: 562-691-0691
-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및 OC교협 월례회
강사: 이신웅목사
일시: 4월 17일(금) 오전 10시-12시 (점심식사가 마련됩니다)
장소: 충만교회(담임 김기동목사) 전화: 714-262-1428
주소: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주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김기동목사)

담임목사 청빙

창립 38년을 맞이한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Ventura County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속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이상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분(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3.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추천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하여 요청 2부 (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 요)
 6. 최근 6개월내 실고 2회
- 제출마감일 :**
2015년 5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내실 곳 :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821 Alta Vista pl. Camarillo, CA93012, djycorp@yahoo.com

기타 :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며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은 우리나라에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가 들어온 날이다. 당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소망없는 은둔의 땅”으로 알았다. 이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도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기도문에 기록하고 있다. 조정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남자들의 마음도 알 수 없고, 가마를 탄 여성들을 만나지도 못할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어둠의 땅이기에 선교사는 더욱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불 들어 달라고 기도하였고, 나이 들어 병으로 후송되어 미국에서 1916년 소천하기까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를 썼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다. 정확하게 올해 4월 5일은 복음을 받아 들인 지 130년이 되는 부활절이다. 이후 조선은 수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치욕, 극심한 전쟁을 겪는 수도 속에서, 교회의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는 정치발전뿐만 아니라, 케이 팝(K-Pop)과 스포츠 등

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세계에 공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눈에 띄는 것은 130년 동안 이룬 교회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세계 최대 교회들 중 여럿이 한국 교회이며, 국어의 사용과 발전, 여권의 신장 및 교육과 병원의 설립,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교회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더욱이 분단 상황에서 조국이 복음을 다시 세계를 향하여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이적이다. 2010년 고든콘웰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연구센터(CSGC)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 약 40만의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은 12만 7천명으로 1위,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에 이어 한국은 2만명으로 6위에 올라 있다. 인구 100만 명 당 선교사 파송 숫자는 3401명인 팔레스타인에 이어, 아일랜드, 몰타, 사모아의 뒤, 즉 한국은 1014명으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 130년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인 선교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많은 산적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병리 현상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부활절 130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윤리적 수준이 아니라라도 다음에서 지속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정직한 신자, 신용 있는 신자, 온유하고 착한 신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신자, 자신의 직업에 성실한 신자, 자녀를 잘 교육하는 신자, 그리고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신자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어떤 형제가 있었다. 후에 성공해 부자가 된 형은 동생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했다. 동생은 새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길에 알고 지내던 동네 아이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게 된다. “아저씨 새 자동차 사셨네요?” “아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형이 선물로 사주었어.” “정말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하지마. 너도 장차 크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날이 올거야.” 이 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아니예요. 저는 선물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님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커서 동생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형이 될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그런데 삶의 가치기준이 단순한 일상적인 문제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마저도 시대가 바뀌고 인간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바르게 볼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기준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진리는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언제나 동일한 것이요 옳은 것이다. 이 진리를 소유하면 우리 일상의 삶을 향한 바르고 건강한 기준을 소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 무쌍한 윤리적인, 법적인 기준마저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참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만이 진리이신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역사 이래로 그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생명을 보장한 자는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장하셨다. 다시 말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장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답이다.

오늘 해야 할 나의 목표는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비슷한 나이의 이민 1세대들이 매일 한 번 씩 식당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할 지 벌써 10년이 지나간다. 어느날 재치 넘치는 정00가 푸념을 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러자 누군가 “아,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하자 모두가 천장이 떠나가도록 박장대소했다. 그 모임의 좌장격인 최00 선생은 그 나름의 다른 경험을 털어놓았다. 어려서는 일제 시대에, 해방 후에는 공산당의 공포 속에 시달리다 6.25 전쟁을 만났다. 그 후 남한으로 내려와 천신만고 끝에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갖게 되자 그 때부터는 가족에 매여 허덕이다 미국에 왔는데 더 고달픈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몸은 늙고 자녀들도 멀리 떠나 외로워져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나 후회가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생각이 180도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목적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올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구절, 그 목적

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구절에 눈이 확 뜨였다고 했다. 맞다. 지금까지 자기는 부모나 처자식, 직장, 교회 및 사회를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편협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민 1세대는 어느새 나이 80세 전후를 맞이하게 됐다. 몸을 돌보며 건강하게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만난 김00은 전혀 달랐다. 내일이면 90세다. 그는 일찍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민 왔고, 또 남미로 이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현재 큰 세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민

었던 친구에게 사기도 당하며 사업에 실패해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희처럼 다시 일어나 오늘날의 사장이 된 것이다. 그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건강관리다. 음식은 채식과 과일 그리고 무공해 콩과 현미밥을 주로 하되 소식하며 꾸준한 운동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는 남들을 섬기는 자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소에 나가 직원들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전 직원들과 같이 먹고 점심도 역시 자신이 제공한다. 세탁소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돈 버는 것은 차선이고 첫째는 직원들과 손님들을 왕처럼 섬기는 자세다. 또 간증집회에 가기도 하는데, 사례비는 반환한다. 그가 영어의 Retired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타이어를 바꿔 끼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내일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오늘 과일나무를 심어 훗날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한다는 철학이다. 하루 하루 그 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김00를 닮을 수는 없을까? 옆에 같이 있기에만 해도 따뜻한 온기가 내게 스며든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 하나되면”

강신권 목사, 비전 153 운동으로 전세계 복음화 앞장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코헨대학교 설립총장)는 전세계 153개 나라 혹은 권역 및 전략적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 하라는 비전을 35년 전 받았다. 이렇게 전세계 주요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되면 기독교UN을 설립할 꿈도 갖고 있다. 강 목사는 이를 위해 지구 97바퀴 거리를 비행하며 지금까지 362차 세계 선교를 했고 109개 지역에서 선교 기반이 마련됐다. 그는 “365차 선교를 마치면 이제 그 기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송도에 기독교 테마파크인 바이블랜드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미 15만3천평 부지 위에 2조2천7백억원 규모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는 미주의 비즈포스트를 비롯해 한중미의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신학이 없다. 우리는 말씀이 삶으로 체현되는 말씀 전수를 해야 한다.”

그는 “우리는 2천년 전 성령 강림을 체험하며 가슴이 뜨거워져 곧바로 선교를 나왔지만 말씀의 전부를 배우진 못했다. 이제 그것을 갖고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147대손 케리 코헨 박사와 함께 코헨신학교를 설립해 제사장만이 알고 있는 성경해석의 비밀을 보급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키아즘 성경 해석, 태필린 교육, 학가다 교육 등이다. 강 목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한국 신학계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에게 예루살렘처럼 언어, 문화, 지리적 여건이 같은 곳에서 이뤄졌다. 제2 세계 선교는 사마리아처럼 자기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 가는 것이다. 제3 세계 선교는 전세계 빈곤 국가의 가난하고 빼앗기고 억눌린 자를 찾아가 선교하던 개념이다.

비전 153은 마가복음 16장 중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선교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뤄지나?

먼저는 그곳에 선교 센터나 기독교 지도자 양성 기관이 세워진다. 학교나 유치원이 세워지기도 한다.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그 나라 각 분야로 들어가 나라를 변화시킨다. 100만명 지도자를 양성해 50년 뒤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충돌에 대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7500여 명을 양성해 냈다.

이 운동에 비전을 함께 하며 동참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있다. 먼저는 세계성경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목회자만 약 120명이 되는데 이 중에는 고 이종표 목사를 비롯해 월간목회 발행인 박중구 목사, 서울 흥익교회 손철구 목사, 보배로운교회 류철배 목사,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 뿌리와 가지교회 정관창 목사, 인도네시아의 이희열 박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53개 나라, 권역, 전략적 도시 중 109개가 완료됐는데 이 중 35%는 이미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져 자립한 상황이다.

이 제4 세계 선교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운동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주인이 되는 운동이다. 우리가 24년 전 선교한 어느 공산권 국가는 벌써 지도자가 1800명이나 배출됐다. 물론 이 나라는 자립했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됐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도 과도한 사역과 재정적인 압박으로 7번이나 쓰러졌지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법이다.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준형 기자



히브리식 말씀 전수 권위자인 강신권 목사가 비전 153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제4 세계 선교에 관해 밝혔다.

선교도 말씀 전수 중심이어야

강신권 목사는 비전153을 “제4 세계 선교학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복음 운동이다. 그동안 미주와 한국에서 히브리식 사고에 기초한 말씀 전수 운동으로 신학은 물론,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온 그는 세계 선교도 이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대인들은 말씀 전수에는 성공했지만 세계 선교에는 실패했고 기독교는 세계 선교에는 열심이지만 말씀 전수에는 취약하다”고 본다. 말씀 전수는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해석해 주는 것을 넘어선 개념이다.

“우리는 분석하고 쪼개는 헬라식 사고에 따라 신학을 배웠다. 그러나 히브리식 사고는 붙이는 사고 즉, 통전적·통합적·통섭적 사고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기에 히브리식 사고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후세대에 전수할 수 있다.”

그가 소개하는 히브리식 말씀 체험은 신 중심, 관계 중심, 직관적 느낌 중심, 동적 사고 중심, 의미 중심이다. 강 목사는 “이런 사고에 근거한 성경 해석법은 에스라 때부터 사도 바울까지 이르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헬라식, 그리스 철학식으로 말씀을 전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교회의 몰락,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쇠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제4 세계 선교의 시대 도래해

세계 선교도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지어주던 과거의 방식’에서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전도해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핵심에는 현지 기독교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 전수가 있으며 강 목사는 이것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점에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이민자 교회가 아니라 그 땅을 복음화하는 선교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강 목사는 “말씀을 익힌 우리 2세대들이 이제 미국 교회의 담임으로 나가서 미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비전 153 운동이 무엇인가?

153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물고기 153마리에 나온 숫자다. 성 어거스틴은 153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라고 봤다. 17은 10 더하기 7인데 10은 구약의 십계명, 7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3과 동서남북의 4를 합친 수라고 해석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결국 153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상징적 숫자라 할 수 있다.

비전 153 운동은 전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찾는 선교 운동이다. 유럽 교회는 이미 몰락했고 미국에서도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 그렇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운동은 제4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제1 세계 선교는 유대인들



세계성경장로교회 임직자들과 임직예배 식순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믿음 위에서 영적 싸움 승리

세계성경장로교회 창립 28주년 맞아 장로 3명 세워

세계성경장로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장로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일꾼을 세웠다. 5일 오후 5시 부활주일 교회 본당에서 열린 임직예배는 2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거행됐다.

예배에서는 강신권 담임목사가 사회, 김성전 장로가 대표기도, 홍만애 장로가 성경봉독, 임종혁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서부노회장)가 설교했다. 임 목사는 출17장8-16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닮은”이라는 설교에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악한 세상과의 전쟁을 늘 하고 있다”면서 “주의 종이 되지 않음도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심을 믿고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은 “교회의 향존직은 영광을 받기보다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서라”고 말했다.

최대준 목사(자양교회 원로목사)와 이충해 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고 장로를 대표해서 담사를 전한 한인신 장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의 말씀에 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헌신하며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임종혁 목사의 연주, 이영진 목사·이미영 사모의 축가로 울려 퍼졌다. 이어 정재진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을,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는데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타린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삶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그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어둠을 통과하면 빛이 된다”

유명 프로듀서 · 찬양 사역자에서 ‘떡볶이 아저씨’ 가 되기까지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내 평생 놓을 수 없는/마음 속 깊은 곳부터/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주님께 예배할 때...”

우울증을 극복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야식배달부 출신 테너 김승일, 15세에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한 색소폰 천재 허민, 이 세 사람은 본국 SBS방송국 ‘스타킹(Star King)’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가 되면서 인생이 뒤바뀐 역전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가 바로 찬양 사역자 강훈 목사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스타킹 300회 특집이 이 3인이 동시에 출연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방송되기도 했다.

강훈 목사는 실력있는 무명 아티스트들의 재능을 발굴, 음악제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CCM프로듀서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희망이 되어준 음악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프로듀서 목사이다. 행복 바이러스, 스타킹 프로듀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세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는. 또 손양원 목사 헌정 음반의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CCM에 랩을 접목시킨 ‘비트CCM’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CCM 장르를 여는 전환점이 되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났던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큰 열매를 맺게 했다. 강 목사 자신의 불우한 삶을 그대로 녹여낸 랩과 찬송가 138장의 삽자가 삽자가 반복하는 후렴구가 방황하던 청소년들의 얼어붙은 가슴에 사랑의 훈풍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3-4인조의 힙합그룹인 ‘바이러스(Victory Is Revival In Us; 우리의 회복이 승리)’를 조직하여 교회를 찾아가 청소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순회집회를 갖기도 했다. ‘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것은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회복이 승리’라는 영문 이니셜을 합성한 것이다.

강훈 목사의 꿈은 평생 문화사역자로 남는 것이었다. 인생 60이 넘으면 찬양사역에 꿈을 둔 젊은 후배들에게 통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었다. 적어도 지난



강훈 목사

해까지만 해도 그것이 개인의 꿈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올 2월 유럽 코스타다회에 다녀 온 후 그의 꿈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꿈꿔오던 문화사역자로서의 꿈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다. 그 계기는 지난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013년 11월 어느날, 그 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평의 어느 고아원으로 위로 공연을 갔을 때의 일이다. 그날, 그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고아들, 원래부터 고아였던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의 이혼으로 버려진 소위 ‘이혼 고아’들을 보게 된 것이다. 국내 청소년 범죄의 70%도 바로 이 아이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혼 고아’들은 성년이 되어 고아원을 떠날 때 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정착금도 지원받지 못한 채 사회로 떠밀려 나와야 한다고 했다. 본의 아니게 제 2의 가출청소년이 되고, 1-2주 버티다 결국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 생존을 위해서.

강훈 목사는 이 아이들을 보며, 그때서야 왜 자기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져 그 아픔을 몸소 겪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그는 10년 동안 프로듀서를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아픈 과거의 일기장을 들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음악에 재능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음악이 아닌 다른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고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때마침, 집회를 통해

감동받은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고아원 안이 아니라 고아원 밖으로 떠밀려 나가 어쩔 수 없이 가출청소년들이 돼 버린 아이들을 찾아내 그들을 자립시키는 일이었다. 묘안을 생각하던 강 목사는 자신의 달란트 중의 하나인 요리 솜씨를 발휘하기로 했다. 거리에서 굶주리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제공할 요량으로 ‘푸드트럭’을 마련하여 떡볶이를 만들어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첫 실험은 개봉동 입구 육교 밑에서 시작됐다. 동료 사역자와 프로듀서로 활동할 때 알게 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찾아와 격려와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끼니를 굶어가며 길거리를 방황하던 아이들이 입소문을 타고 꾸역꾸역 찾아와 떡볶이 한 접시이지만 한 끼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 물론, 무료로 제공됐다.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주변의 세상 인심은 점점 더 박해지고 결국 ‘푸드트럭’을 접어야 했다. 당장은 끼니를 거를 아이들을 생각해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꿈을 꾸기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푸드트럭’이 아닌 떡볶이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대로 쉬고 끼니를 떼울 수 있는 가게를 차려 자리를 잡고, 그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운영할 만한 아이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자신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가게를 마련하여 또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넘겨 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 목사가 이 곳 한인교회를 찾아 온 이유 중 하나도 그 꿈을 실현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서이다.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가정예배만은 거르지 않고 남매를 이끌어 준 할머니의 신앙유산은 평생 강 목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강 목사에게는 ‘개척 떡볶이 가게’가 ‘개척 교회’이다. 전국 곳곳에 ‘개척 떡볶이 가게’가 늘어날수록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 들고, 자립한 젊은 청년들은 점점 늘어나는 ‘건강한 사회’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것이 선교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강 목사는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떡볶이 아저씨’로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

이영인 기자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

5월 4일 제 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열린다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그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카니 정 조(한인가정상담소 소장), 고태형 목사(종교자문위원회 위원·선한목자장로교회), 서철원(한인가정상담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박세현 목사(종교자문위원회 위원·예수로교회), 이시연 박사(칼스테이트 엘에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맨 왼쪽으로부터)

오는 5월 4일(월)에 열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 주최, ‘제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설명회가 7일(화) 오전 11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렸다.

이번 개최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3회째이며, 지난 해부터는 블루실드 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된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로, 한인 목회자, 부교역자, 가정 사역자, 사모, 신학생,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관심있는 평신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상담소 서철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해부터 블루실드 재단의 후원과 함께 결성된 종교자문위원회(Korean Faith Advisory Council)가 준비위원회를 열어 그에 기초한 커리큘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한인 이민 가정들을 다시 세우기에 힘쓰는 목회자들 및 관심있는 교회 리더십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고태형 목사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정의 수직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권면하기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만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 컨퍼런스는 목회자에게 부족한 실재적이고도 전문적인 노하우를 접

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세현 목사는 “이 컨퍼런스 개최는 ‘가정폭력’이 아닌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회는 예배, 전도, 봉사, 구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정 세우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작은 미자립교회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 받기를 바란다”며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시연 박사는 “미국 전역의 현지 담임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Life Way Research, 2014)에서 72%가 미국내 자신들의 교회가 묻는 커뮤니티에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2010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서도 미국내 여성 4명 중 1명(24.3%), 남성 7명 중 1명(13.8%)이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한다고 했다. 또 한인 가정의 경우, 60%-75%가 가정폭력을 한번쯤은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교회이다”며 가정폭력 예방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의 주 강사인 손익 목사 외에도 전현직 목회진으로 구성된 목회자 패널, 법률자문 패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일시: 5월 4일(월) 오전 9시-오후 2시/장소: LA가든스윗호텔(681 S. Western Ave., LA, CA90005)/참가비: 무료/ 문의 및 예약: 김아림 (213-235-4848/ 이메일: akim@kfamla.org)

이영인 기자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마동환변호사

www.marhlaw.com
email: marhlaw@yahoo.com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모든 법적 문제의 만족한 결과는 정확한 상황 분별과 의뢰인의 필요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합니다. 법적인 모든문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마동환변호사그룹

상법 / 이민법
일반민사 / 상해 / 교통사고
가정법 / 뱅크럽시 / 소송전문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LA 본사
213.487.9190 fax. 213.487.9484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팍 / 플러튼 / 세리토스 지점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 시스템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 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Water Amount Due **\$322.98**

ater & Power

nt Due **\$23.38**

Power Charges			
15	152 KWH		\$23.38
15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중)

(지난 호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길로 평안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들어가라고 당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4,25).

“아비나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7-39).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설명하셨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과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만 따르는 순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주님 때문에 육을 먹고 핍박을 받는 길인데 기뻐하며 즐거워하여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1,12).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했다.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5:40,41).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말로는 십자가를 예찬하면서도 실제로는 싫어하며 거부한다고 생각한다. 고난과 멸시를 받기보다는 평안과 높임을 받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마음을 품고 쏟아낸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들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감성적으로는 십자가를 예찬하고, 유창하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머리로는 십자가를 예찬하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걸어가기 싫어하며 피해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우

리들은 가난과 고난도 멸시와 천대도 핍박과 죽음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며 피하려고 한다.

사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싫어하며 거부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와 고난”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마26:56).

그러나 십자가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흠뻑 받고 또 받은 축복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생 울면서 사랑을 쏟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고 생각한다. 배신의 길을 거듭해서 걸어간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도 나중에는 디베라 바다가로 자기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곱 마디 사랑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

박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걸어가면서 매일 울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이런 권면까지 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2-14,16).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길이 아니고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서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간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제일 먼저 걸어간 사람이 스테반 집사였다고 생각한다. 스테반 집사는 예수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 결국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와 저주를 받으며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의 가슴과 입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악독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대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증언만을 쏟아내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

고 모습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 보였고 생각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의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셨다고 생각한다. 스테반 집사가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들어가면서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핍박자 사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테반 집사의 간절한 사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올바르게 지적하셨다. 또한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일로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참으로 놀라운 길이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길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간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이어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6:14).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 많은 수고와 위험을 당했다고 길게 나열하기도 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강도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대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게 되었고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고후 4:10).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6:1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고백했다(고후12:1).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롬5:3).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자기 몸에 채우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었고 고난을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추구한 “고행주의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추구했던 성 프랜시스와 중세 수도원주의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가난과 고난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사모했던 “고행주의의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걸어간 “십자가와 고난”의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십자가와 고난”의 길 때문에 로마 시대에 살던 수 많은 악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계속)

죄사함과 축복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길

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7:55,56).

우리 죄인들이 부족하지만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걸어갈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7:55,56).

스테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증오와 저주를 쏟아내는 대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쏟아내면서 저들을 위한 사죄의 기도까지 드렸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7:59,60).

스테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결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세상의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1,2).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가문이나 학문이나 종교적인 열심 등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버린다고 고백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7-9).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2:10). “그리스도로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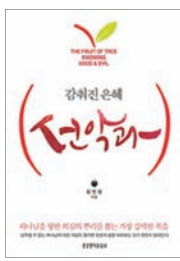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박태연 | 레베카 | 296쪽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는 성경' 사무엘상 설교집이다. 커다란 시련을 겪었음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연 세 사람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 운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오늘 닦쳐오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낸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감춰진 은혜 선악과
김민정 | 생명의말씀사 | 112쪽

맛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선악과'라는 뿌리로 거슬러 올라갔던 저자의 짧은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선악과를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을 향한 정제 모를 의심의 싹덩어리가 바로 선악과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임을 깨닫게 됐다. 그때 찾은 답을 '선악과의 은혜'라 표현하는 저자는, 이전보다 훨씬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고백한다.



어머니 세움
박미숙 | 생각올답는집 | 232쪽

자녀를 키우는 기독교 가정 '민음의 어머니'들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길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안내서다. 선교사로 활동하다 목회자 사모가 돼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지금보다 더 거친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어머니야말로 선교사"라고 말한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자녀의 미래 앞에서, 거룩한 이름 '어머니'로 함께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 자녀에게 성을 이야기할 때
스텐 존스, 브레나 존스 | 소원나무 | 340쪽

자녀가 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당황할 것이다. 성에 대해 자녀에게 어떻게,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을 회피하거나 예들러 표현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녀가 또래집단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REVIEW

“허기진 신앙생활을 채울 하나님 나라의 풍미를 맛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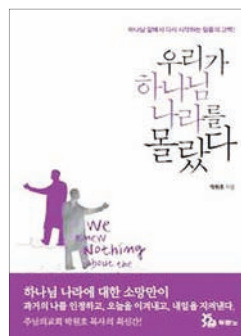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지켜낸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회의 근본이며, 믿음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는 한국 주님의교회 박원호 목사의 최신간으로, 저자 자신의 신앙고백이자 목회적 헌신의 열매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바람 앞의 등불이요, 뿌리가 약한 나무요, 기초가 부실한 건물과 같다. 언제 넘어질지 모를 아이슬

한 줄타기처럼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다.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인생고락을 위한 신앙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한국 교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한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내일을 전망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박원호 | 두란노 | 196쪽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오랜 시간 신학교 교수로 하나님 나라를 가

르치고 전해 온 그의 뜨거운 소망에 기인하고 있다. 안일한 이상이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애써 온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비교적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

라에 입국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완성됨을 깨닫게 해준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드라마로도 보고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십자가의 초대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팔복 매뉴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책은 당근만을 바라던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 일침을 가하며, 수면 중인 영혼을 흔들어 깨워 줄 한줄기 신선한 생명바람이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C. S. 루이스, 기독교의 본질을 ‘친절하게’ 안내하다 “십자가를 본받아, 부활을 살아내라”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아일랜드의 안락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좋은 부모님, 좋은 음식, 그리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정원’이라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으로 요약했다.

루이스는 글을 쓰도록 자신을 몰고 간 것이 손으로 하는 일에 무척 서툴렀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단 하나의 관철한 갖고 있는 업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유전된 것으로, 그의 형도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많은 눈물 속에서 마분지와 가위를 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바로 펜을 붙잡는 일이었다. 그가 이야기를 몹시 좋아하는 것도 스스로 이야기를 쓰도록 이끌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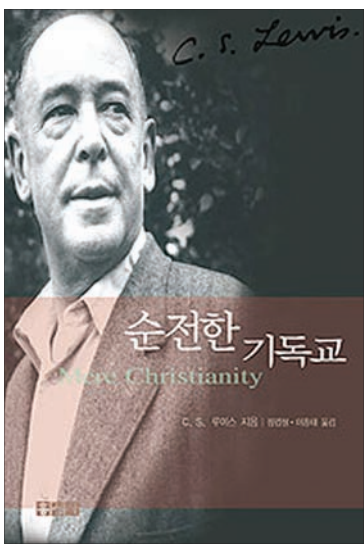
루이스는 거의 평생을 ‘대학 도시’인 옥스퍼드에서 보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였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특히 ‘잉클링스(Inklings)’라는 서클은 문학계와 종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다. C. S. 루이스와 (반지의 제왕) 작가 J. J. R. 톨킨은 절친한 친구이자 옥스퍼드 중심에 사는 작가들의 모임인 잉클링스의 회원이었다.

루이스와 톨킨은 이 잉클링스 모임에서 신화와 서사시를 비롯하여 사회 문화에 관해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글을 쓴 다음, 서로 돌려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신앙에 입문하면서 요한복음을 처음에 그리스어로 읽었다. 그 후 성경 읽기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이라도 읽어 나갔다.

루이스는 기도할 때, 특히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경을 읽으



순전한 기독교
C. S. 루이스 | 홍성사 | 349쪽

며 묵상에 잠겼다.

루이스는 1940년대 말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1주일에 평균 100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소중하고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회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는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영적인 조언자였다.

그의 책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뢰받으며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따뜻하고 진실한 루이스의 신앙심이 그의 책들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어갈 수 있는 글을 써낸, 몇 안 되는 기독교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순전한 기독교〉는 원래 루이스가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네 번에 걸쳐 영국방송공사(BBC)에서 시리즈로 행한 방송 연설의 내용을 1952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루이스는 “우주의 배후에 과연 누가(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그는 유물론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이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어느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느냐’이다. 유감스럽게도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루이스는 이 궁극적 실재(하나님)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무신론을 고려 대상에서 제거한다. 이어 그는

범신론과 이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제한다. 남은 것은 결국 기독교 신관뿐이 됐다.

그는 악의 문제를 다룬 후,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제시한다. 물론 악과 고난이라는 주제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가 하나님의 근본적 해결책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말한다.

C. S. 루이스에 따르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고백과 함께 일어서거나 넘어진다.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에 중립이나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마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C. S.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하고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사’라고 생각했다.

비록 이 책이 가벼운 책이 아니요 다소 문화적 감이 느껴지는 저술이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한, 가장 뛰어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많은 회의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치밀한 논리와 풍부한 상상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평가된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마이클 고먼
새물결플러스 | 680쪽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독특한 단어 ‘cruciformity(십자가의, 십자가 형상을 지닌)’과 ‘conformity(본받음, 따름)’의 합성어로, 원제는 ‘십자가를 본받음 또는 본받는 삶(cruciformity)’이 된다.

저자는 바울 신학과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라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conformity to the crucified Christ)’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바울의 십자가 영성’이라 바꿔도 무방하다.

이러한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자가 바울 신앙의 핵심을 ‘이신칭의’도 ‘그리스도와 연합’도 아닌,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라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책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밝혀내는 데 집

중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일상의 삶을 역동적으로 일치시켜 가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체험을 첫 네 장에서 분석하고, 바울이 편지에 적었던 십자가 관련 말씀들을 열거하고 의미를 찾은 후, 그의 십자가 체험을 믿음과 사랑, 능력과 소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측면에서 짚고 살피고 있다.

저자는 바울의 십자가 영성이 그 시대의 종교 현상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현상에도 도전을 던진 것이고, 그가 쓴 서신의 수신자인 공동체 내부에서 ‘다른 영성’을 주장하며 십자가를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다르게 이해하던 이들에게도 도전을 던진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날 속죄나 폭력, 자기희생 등 ‘십자가를 본받는 삶’에 대한 (주요) 신학적 도전들에 대해 응답하고,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포괄적이고 상상력을 요구하며, 카리스마 영성이요 선지자의 영성이며, 공동체 영성이자 내러티브 영성이며, 무엇보다 값진 영성이라고 주장한다.

이수민 기자

십자가와 함께하는 십자가 영성

일상, 부활을 살다



일상, 부활을 살다
유진 피터슨
복있는 사람 | 160쪽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활이란 어떤 목적에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개선해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활이라는 중심을 회복하고 이 부활의 터전에서 자라나는 영성 형성의 전통을 받아 들여야 한다.

책 전체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도 ‘영성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에 빠진 ‘경이와 신비’, ‘초월과 다름’의 체험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지나치게 비밀스럽거나 황홀하며 로맨틱한 것으로 만들려 해서도 안 된다. 저자는 이 논거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가장 ‘일상적인 장소’인 식사 자리에서 두 차례나(눅 24장, 요 21장) 함께 하셨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리고 부활의 실체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아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친구들’로서 해 나가야 함을 마지막으로 지적한다. 기독교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에 뿌리 박은 영성’이고, 저자의 일관된 관심도 우리의 일상과 평범함을 조건으로 포괄적 의미의 기독교적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부록으로 저자가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부활 이야기(마 28장, 눅 24장, 요 20-21장)가 들어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나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깃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깃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천으로 깃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택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s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어구 통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볶고기 콩차구이 오로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피게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통고구리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통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National Day of Prayer to Take Place on May 7 in Washington, D.C.

Jack Graham Appointed as
Honorary Chairman

The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will be taking place on May 7 at the Cannon House Office Building on Capitol Hill, with Dr. Jack Graham, the lead pastor of Prestonwood Baptist Church, as the Honorary Chairman. Korean Christian leaders are also expected to personally attend the event in D.C.

The National Day of Prayer began in 1952 with a joint resolution of the Congress, and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Harry Truman, and a law signed by President Ronald Reagan in 1988 designated the first Thursday of May each year as the day in which the event would take place.

"The observanc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found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religion, and can be celebrated by all Americans," the organizers said.

The theme for this year's event is, "Lord, Hear Our Cry," based on 1 Kings 8:28, in which King Solomon prays, "Hear the cry and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is praying in your presence this day."

"Kingdoms and nations throughout all history have risen and fallen on prayer," Graham said in a video statement. "The reason is seen in Psalm 103:19, which proclaims, God's kingdom is the one kingdom, the one and only kingdom that rules over all others. And amazingly, prayer connects us, gives us a welcome audience, with Almighty God—the one true God who reigns over every ruler,

every authority and nation."

"Prayer enables us to actually connect with God and takes us into the presence of Jesus our Lord," Graham continued.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expected to feature a proclamation from President Obama, as the President so does at each year's event.

"I invite the citizens of our Nation to give thank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faiths and consciences, for our many freedoms and blessings, and I join all people of faith in asking for God's continued guidance, mercy, and protection as we seek a more just world," President Obama stated in last year's proclamation.

In addition, leaders from the armed forces and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re expected to be present. Christian leaders will also be leading prayer topics interceding on behalf of the nation o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and family.

Graham is known for his time as the two-term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s well as his work with PowerPoint Ministries. Previous Honorary Chairmen for the event include Anne Graham Lotz, daughter of Billy Graham and founder of Angel Ministries; and Greg Laurie, leader of the Harvest Crusades.

The event will take place from 9 AM to 12 PM EST, and can be streamed online at <http://nationaldayofprayer.org/national-observance/>.



Some 250 Korean Americans from different churches in the Southern California area gathered together in corporate worship.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Rise"

Korean American Churches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 Risen Savior

BY RACHAEL LEE

Some 250 Korean Americans from various churches gathered at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located in Pasadena, CA, at 6 AM on Easter Sunday for the Easter Daybreak Service hosted by NexGen Pastors' Fellowship, a network of Korean American pastors in Southern California. Some of the churches represented include Hillside LA,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NLVC),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CCH), and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

This year's service is the second such service hosted by NexGen. For many years, the Easter Daybreak Service was hosted by another gathering of Korean American pastors called the Korean American Pastors' Network, until the task was eventually passed on to NexGen beginning in 2014. One of the largest Easter daybreak services had some 400 people in attendance.

"One of the aspects of these gatherings that is so special is that

all of us are coming together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said Pastor Sam Park, who leads CCH and who also preached at this year's service.

Park spoke on John 20:19-22, a passage in which, after Jesus had already resurrected,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at a home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appears to them and says, "Peace be with you," and then breathes on them and says, "Receive the Holy Spirit."

"If the disciples had remained in that room, huddled in fear, and had never told others about the gospel, Jesus' resurrection would simply have remained an object of speculation and mystery," Park said. Park posed that perhaps this portrayal of fear is an accurate picture of many of Jesus' disciples today. But in that moment of fear, Park said, Jesus exhorts his disciples to "receive the Holy Spirit."

"The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is for the purpose of bearing witness to Jesus and his resurrec-

tion," Park said.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continued.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testify to His resurrection. Breathe in the Holy Spirit, and rise."

Other speakers include Pastor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NCC, who led corporate prayer; and Pastor Kiwon Suh,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of NLVC, who gave the benediction. Undignified Tour, a worship band stemming from the campus ministry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led worship.

NexGen, which began in 2011, has been hosting several gatherings each year for Korean American pastors in Southern California. Some of the recent events it hosted include "Love the City," a panel regarding loving the city of Los Angeles, and "Rites of Passage," during which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astors were able to come together toward deeper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 The Key to a Healthy Pastoral Relationship between 'KM' and 'EM' is Discipleship

BY RACHAEL LEE



Pastor Timothy Yoo (left) and Reverend John Kim (right) shared that discipleship was key to their relationship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Reverend John Kim, the senior pastor of World Agape Mission Church, and Pastor Timothy Yoo,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of WAMC, shared their stories of the Korean and English ministries of WAMC, and the journey that it took to build WAMC to be the church it is today. WAMC is a Korean immigrant church located in Los Angeles, and the English ministry consists of some 100 members.

Currently, 80-90% of the students in EM choose to stay near Los Angeles for college instead of going out of state because they want to stay at WAMC and continue to serve, Yoo said. 85-90% of the EM members regularly tithe, and many of them attend early dawn prayer with the Korean ministry (KM).

"At one side you hear people screaming, 주여!, and on another side you hear, Jesus! We're praying in different languages but we're all praying together with one heart," Yoo said.

What is the secret to the health of this church and the dedication of its members?

According to Yoo and Kim, it's discipleship.

WAMC was actually first started with discipleship. Kim started the church 38 years ago with 500 youth and young adults, and disciplined them. During a time in which

other churches did not have youth ministries, Kim decided to invest wholly and solely in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y "shared life together," these young people grew in their knowledge and love for the Lord, and some committed to serving as full time ministers at WAMC, one of whom was Yoo.

When asked what exactly "sharing life together" meant for them, they said, laughing, "We lived together."

Kim built a dormitory for his 10 disciples and himself to live in, and together they ate, talked, laughed, cleaned, prayed, and shared everything together. When Kim had events to attend, he would ask Yoo to drive him there.

"I was pretty much his chauffeur," Yoo said with a smile, joking. "But it was because I drove him to these places that I was able to observe how he does ministry and how passionate he is."

Both pastors agreed in saying that the key to creating a church atmosphere in which the KM pastors and EM pastors can work together and build each other up is discipleship. As Kim lived with his disciples and invested in them wholeheartedly, his disciples, in turn, were able to learn his heart and develop their own passion for the church. Then, as Yoo committed to lead the EM, there was

no room for tension or clashes in opinion between Yoo and Kim, because at that point, the two already shared the same mindset about how to do ministry.

"I don't consider any of my pastors as 'inferiors.' They are my partners, and our boss is God," Kim said.

If olde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had oppositions about how some younger pastors were leading ministry, Kim said that he would try to shield them from these oppositions.

"I try to help the 1st generation Korean members of our congregation to understand that 2nd and 3rd generation members just learn and interact differently," he explained.

When asked how Yoo goes about discipling and mentoring the younger men in the church, he said his discipleship training consists of 6 meetings per week. But, Yoo said, most of his disciples come an hour or two early, and stay a little later after meetings as well. So, in total, he said they spend about 20 hours per week together, sharing life in that way.

When confronted with the argument that a language barrier might hinder relationships between KM and EM, Kim responded, "I think that if someone is loved, they will know it."

Both Kim and Yoo exhorted the church leadership to invest in and love on the younger generation. There is no quick-fix or easy solution to building faithful leaders in the church, they said. But through loving discipleship and long-term investment, God can use current KM leaders to raise up passionate disciples and future leaders of EM to partner in building His kingdom together.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Atlanta Share God's Love Over Easter Weekend

BY ANDERSON KIM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Atlanta has been spreading the meaning of Easter through its service in the community. Organizations led by or partnered with Korean churches have led various service project over the weekend, by serving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in various ways, including giving gifts, planting flowers, music performances, and worship services.

The organization that kicked off the series of community service events was Yesana Mission, a Korean community outreach organization in Atlanta. Yesana began its project on Saturday, during which they visited the shelter on Peachtree Street. Yesana hosted a time of music, food, and worship with those in the shelter.

As Hope Johns Creek Orchestra performed, Yesana members gave the attendees brown bags containing decorated eggs, sandwiches, fruits, cookies, chips, and water. A loud applause followed the orchestra's performance.

On Easter Sunday, Yesana Mission also visited My Sister's House, a bed facility in Atlanta that provides overnight shelter and residential discipleship programs for homeless women and women with children, and provided dinner for those at the facility.

Stepping Stone Mission, a Korean organization that serves the homeless community, hosted its sixth annual Easter Sunday community event for the homeless, during which 600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gathered and participated in corporate worship at Hurt Park in Atlanta. Stepping Stone also provided gifts, barbering services, health checkups, gardening services in the park, among other services.

In the gift-giving event, bags with necessities for the homeless—t-shirts, socks, underwear, razors, toothpaste, toothbrushes, chips, canned food, and transportation cards, were given to those who were present. The gifts were brought together by the service and offering of various churches and individuals.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provided food and fruits for the attendees.

An attendee who called himself Jimmy Wallace expressed thanks for the Koreans who have been serving them during this season.

"I'm a Vietnam War veteran, but now I'm living in homeless shelters," Wallace said. "I heard about this event happening at this shelter, and I'm really glad I came. I really feel that the Koreans' hearts are so warm."

Taking Steps of Faith Forward...

Christianity Daily, an English off-shoot of 기독교일보 (*Gidok Ilbo*), began as an Internet-only publication in January 2014. About one year and three months later, w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of faith and begin a journey in print publication.

We thank all of you who have supported us thus far by visiting our website and reading our content, and we humbly ask that you would keep us in your prayers. It

was by God's grace that we have been able to grow over the past year, and it will continue to be His grace that sustains us. We're excited to witness how God will continue to move in this generation. May His will be done, and His kingdom come.

If you have any tips, questions, or comments regarding the newspaper, please feel free to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FIRE

CRUSADE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우리는 성령님을 원한다” 토미테니

부모/자녀/그리고/청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것이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Speaker
김기동 목사



기도 인도
정기정 목사



Praise
FIRE CRUSADE



Worship
갓스이미지 GIM

<< 집회 참석자들의 간증들 >>

“이민 생활 25년만에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들어 설 때 이미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제 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청년이 교회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30년 모태신앙의 끝자락...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2015. 4. 25. 7PM

UNITED GENERATIONS CONFERENCE

나침반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Facebook.com/Firecrusade